

인 활 회 고



## • 국산유허유의 초기 (II) •

極東潤滑油(株)社長 宋 振 煥

1960년도에 들어와서 유허유의 재생이 더욱 활발하였던 것은 전호에서 논술하였거니와 ‘대한석유평사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제품의 수입과 판매는 KOSCO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입·판매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따라 유허유의 재생 및 생산 공장등의 건설이 허가되어 그 원료가 되는 조유의 수입이 몇 개 회사에 외화배정이라는 형식으로 허가됨으로써 당시로서는 본격적인 공장의 가동·판매등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1961년 말인데, 그 당시에 설립된 회사는 극동정유(현 극동셀정유), 삼양정유(현 모빌코리아의 전신), 해동정유(효성물산 계열, 후에 폐쇄), 동방광유(현 한일정유의 전신), 대한정유(후에 미창석유에 흡수됨)이고, 후일에 ‘대한석유평사법’이 발효되면서 제10조에 의한 공장으로서 인정되어 원료 도입에 필요한 외화배정을 받게 되었는데, 1961년 말에 설립된 미창석유는(부산 영도 소재) 제10조에 의한 공장으로서 합당치 못하여 외화배정을 받지 못한 유일한 공장이 되었고, 따라서 특수유 공장으로서 전환되었다.

1962년 7월에 ‘석유평사법’이 공포되어 해방 후 국내 최초의 정유 공장이 1963년 Gulf와 합작으로 설립되었고, 연료유의 생산과 더불어 고급 유허유의 혼유를 위한 생산 시설도 계획되었다.

이 와중에서도 상기 6개사는 자사 상표의 유허

유를 생산하였는데, 아직도 국산 상표가 널리 보급되고 있음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현재 기억으로 KOSCO는 전량을 배정하면서 판매하였고, 유허유는 주로 군용(OE 또는 SY)이었으며 민간의 상표는 본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KOSCO는 油公이 인수하면서 合作先의 Gulf상표의 유허유를 판매하였고, 따라서 수입품과 국산 유허유 두 종류가 주종을 이루었다.

1962년 최초로 한국에 수입한 조유(Topped Crude)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수입하였으며 일반 상선의 deep tank를 이용하여 수입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유허유 생산은 폐유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유 역시 산백토 화학 정제에 익숙하지 못하여 미국으로부터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도하였던 일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조유가 Base Oil을 생산하는 원료가 되었으며, 이것과 첨가제를 사용하여 유허유를 생산하였는데 여기에 필요한 조유등도 각사가 미국이나 일본등지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조유의 수입에 의하여 생산하다 보니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품질의 차이 등을 조정하기 어려워 극동정유는 1964년에 극동석유를 창설, 유허기유의 국내 조달을 위한 공장 건설의 허가를 득하여 상압 및 감압 증류 장치를 설치, 1966년 3월부터 Naphthene계 조유를 생산하였고, 풍

부한 원유 공급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MEK 탈납 시설을 추가하여 중등 원유로 전환하여 MV IP (Medium V. I. Paraffine) 조유를 1968년 말부터 생산하였다.

이 무렵 정부의 경제계획에 의하여 某기업체가 고급 윤활유의 본격적 생산 시설을 계획하였으나 도중에 하차한 예도 있듯이 격렬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1960년대는 전적으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국내 자본에 의한 윤활유의 화학 처리 정제 시설에 의한 생산이 일부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외국의 상표가 붙은 고급 윤활유가 수입되는 전환기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고급 윤활유와 보통급 또는 그 이하의 윤활유로 대별되어 있다가 점차 고급 윤활유로 이전되어 가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고급이 절반 이상이고 국산은 전체

수요의 30% 내외에서 25% 이하로 점차 감소되어 갔다. 어느 나라든지 윤활유의 발전사를 보면 정유공정 및 기계 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제품도 고급화되어 왔으며 우리 나라도 Naphthenic Base 윤활유로부터 Paraffinic Base의 고급 윤활유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바야흐로 경제 발전에 힘입어 국내 자본의 공장도 외국 유명 회사와 합작을 하였는데, 그 중 극동셀정유는 1968년에, 모빌코리아는 1973년에, 한일정유는 1975년에 일본의 日本高潤과 합작 또는 기술 제휴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산 상표의 윤활유도 단순히 LVI로 표시하였지만, 그 중에는 HVI를 수입하여 Blending한 것도 있어서 일일이 그 종류를 열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것이 유사 상표 또는 규격 미달인 저질 윤활유의 판매였는데, 더우기 품질보증이 안되는 제품들이 시중에 범람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문에 당시의 상공부는 이를 시정하고자, 윤활유업제로 하여금 民間檢査所를 설립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윤활유협회(그동셀정유, 모빌코리아, 미창석유 등이 주축)에서 출자하여 사단법인 유류검사소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생산되는 모든 윤활유제품은 사전검사를 하여야만 제품의 출고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운영비를 업계가 자체적으로 부담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검사비가 면제되었던 K·S 제품까지도 자체 운영을 위하여 자진 검사비를 내는 등 윤활유업계가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존재의 위기도 겪었으나, 업계의 절대적인 협조와 감독관청의 지도로, 유일한 민간 검사소로 운영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유화검사소'라 개칭되어 계속 이어내려 오고 있다.